



# 가전제품, 美 수출시장에 빨간불

에너지스타 제도 강화로 우리제품의 시험 인증 부담 가중 우려

##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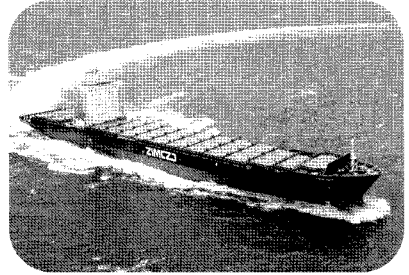
- 미국 소비자들이 컴퓨터, 에어컨, 냉장고, TV 등 주요 가전제품 구입시 중요한 구입 기준으로 여기는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.
- Energy Star는 '92년 환경청(EPA)과 에너지부(DOE)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·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써 컴퓨터·TV·냉장고·세탁기·에어컨·보일러·변압기 등 53개 품목이 대상인데,
  -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는 '09년 이후 경제회생입법 (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)에 근거한 세금혜택이 부여되고 있어, 에너지 스타 마크는 기업들의 판매전략에 필수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.



## 개편안의 내용

- '10.14 美환경청(EPA) 및 에너지부(DOE)는 에너지스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,

-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⇒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하여 평가 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.



- 10.5.3, EPA는 상기 개편안과 관련하여 시험소 및 시험소 인정기구를 승인하는 기준(안)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는데,
  - 시험소는 EPA로부터 직접 심사/지정을 받거나, 시험소 인정기구 간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ILAC\*-MRA에 가입한 인정기구 중 EPA가 승인한 기구가 인정한 시험소로 한정하였고,
    - ※ ILAC: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
  - 10.11.30까지 관련 승인 절차 정비를 완료하여 '11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.
    - ※ '10.12.31까지는 기존의 마크와 병행사용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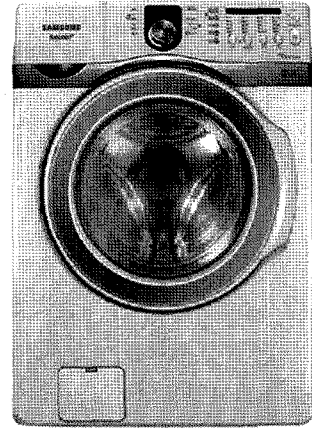
## 우리나라의 영향 및 대응

-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20.8억\$(09년)\*1로서, 금번 제도 개편 시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\$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  - ※ 국내 통관 기준으로 멕시코 등 해외공장 및 미국 현지공장 생산액을 포함시 가전 3사의 수출액은 약 143억\$
  - 또한 에너지스타 마크를 적기에 받지 못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는 5.2억\$\*2 이상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.
    - ※ 국내 통관 제품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연 가능기간의 최소값(3개월)적용
- 이와 관련,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T/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
  - 우선적으로 KOLAS(국내 시험소인정기구)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美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,



○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 개를 우선 선정하고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표준원 관계자가 밝혔다.

※ 주요시험연구기관 : 조명기술연구소, 전기연구원, 산업기술시험원, 전자부품연구원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전기전자시험연구원



■ 아울러 EPA의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美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,

○ EPA측의 시험소 및 시험소인정기구 심사 기준(안) 등이 'EPA에 대한 보고의무', '평가과정 참관허용' 등의 부분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美 EPA측에 전달하는 한편, 일본 중국 EU와의 공조 및 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EPA측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■ 금번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대형 전기·전자 제품 이외에 조명기기·유리창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,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향후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스타 인증 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했다.

※ 기술표준원에서는 TBT 포털([www.tbt.kr](http://www.tbt.kr))을 통해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(안) 세부 기술기준을 게재

### 미국의 절전형 가전제품에 대한 지원제도

■ 미국은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권장하고 가전제품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제도를 시행

(1)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세금혜택

-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(2009)에 근거
- 미국내 공장에서의 법인세 경감혜택
- 에너지 또는 물의 효율 등급에 의거 차별 지원

- 식기세척기 : \$45 또는 \$75
- 세탁기 : \$75 ~ \$250
- 냉장고 : \$50 ~ \$200

※ 자료출전 : [http://www.dsireusa.org/incentives/incentive.cfm?Incentive\\_Code=US42F&re=0&ee=1](http://www.dsireusa.org/incentives/incentive.cfm?Incentive_Code=US42F&re=0&ee=1)

### (2) 캐시 포 어플라이언스(Cash for appliance)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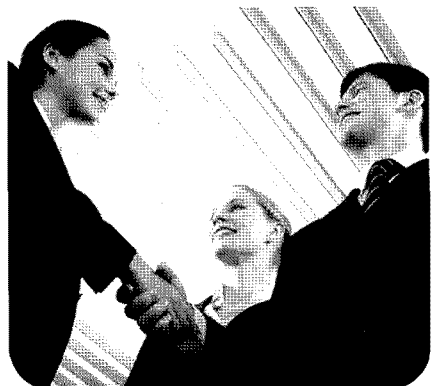
- 친환경(에너지 효율이 높은)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, 정부가 소비자에게 냉장고는 300\$, 세탁기는 100\$, 에어컨은 50\$ 정도를 환급
  - 메일 인 리베이트 시스템(mail-in rebate system)으로 환급처리
- 총 3억 \$의 지원금을 각 주정부에 분배, 주별로 각기 시행하고 기금 소진시까지 실시
  - 일리노이 (650만 \$; 4.16 시작, 11시간동안 시행)
  - 플로리다 (1,750만 \$; 4.16 시작, 36시간동안 시행) 냉장고, 세탁기 등 에너지 스타 가전제품에 대해 20%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기존 제품 재활용 고객들에게 추가로 75\$를 지원
  - 아이오와 (280만 \$) 냉장고 최대 100\$, 세탁기 최대 200\$ 지원
  - 캘리포니아(3,530만 \$; 4.22 시행)
  - 버지니아 (745만4000\$)
  - 메릴랜드 (540만5000\$)
  - 워싱턴 DC (56만8000\$)
- 삼성, GE, 월풀 등 13개 냉장고 브랜드와 대우, GE, LG 등 18개 세탁기 브랜드, LG, 파나소닉 등 25개 에어컨 브랜드 해당

※ 자료출전 : LA Times

### (3) 기타 개별 기관별 지원

- LA 수도전력국 및 에디슨 사(남가주 전기회사) : 오래된 냉장고를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냉장고로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100\$의 리베이트를 제공
- 에디슨 사 : 에너지스타 인증 에어컨에 50\$의 리베이트를 제공
-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(남가주 가스회사) : 친환경 세탁기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35\$의 리베이트를 제공

※ 자료출전 : LA Times, Chicago Tribune 등 현지보도



**미국, 그린전자제품 (Green Consumer Electronics) 시장 동향**

■ 시장 규모 및 구성비

○ 미국 전자제품 소매시장 추이

- 미국 전자제품 소매시장은 2008년 약 870억\$ 규모로 세계 금융위기로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, 201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2014년(939억\$ 규모)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될 것으로 예상
- 매출구성 면에서 신규 구매가 60%, 기존제품 대체구매가 40%를 차지

구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(예측)	2014년(예측)
매출액(백만 \$)	89,930	91,000	87,000	84,000	93,900
연간성장률(%)	3.8	1.2	-4.4	-3.4	-
연간기업수(개)	39,844	39,796	35,132	33,264	-

※ 자료 출처 : IBIS World Industry Report

○ 제품군별 시장 비중

- TV, 백색가전, 컴퓨터 분야가 각각 31, 29, 17% 점유
- TV, 비디오 분야의 비중이 2000년 18.4%에서 31%로 증가되었는데, 2009년 공중파 TV의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 및, LCD, 플라즈마(PDP), LED TV 등의 빠른 가격하락에 기인하는 바, 향후에도 비중 증가가 지속될 전망

제품명(자료 출처 : IBIS World)	매출비중(%)
TV, 비디오	31.0
백색가전 : 냉장고, 냉동고, 전자레인지, 식기세척기, 세탁기, 건조기	29.0
컴퓨터 : PC, 노트북, 소프트웨어	17.0
오디오	10.4
사무기기 : 복사기, FAX 등	9.9
기타	2.0
소형가전 : 헤어드라이어, 전동칫솔, 믹서, 토스터, 커피메이커 등	0.4
주방기구	0.3

■ 주요 백색가전의 제조사별 미국 소비자 만족 순위

- 우리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돼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에너지

스타 인증 등을 통한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큼.

순위	냉장고	세탁기	세탁건조기	전자레인지
1	삼성	삼성	삼성	LG
2	Whirlpool	LG	LG	Frigidaire
3	LG	Kenmore	Kenmore	Kenmore
4	Kenmore	Fisher&Paykel	Bosch	GE
5	KitchenAid	Bosch	GE	Kitchen

※ 자료 출처 : JD Power, 2009 Home Appliances Study

- 미국 가전제품은 수입이 수출보다 3~4배 더 많아서 매년 약 50억 \$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, 특히 냉장고, 에어컨, 전자레인지 수입 비중이 높음
  - 미국 가전제품의 수출은 2007년 20억5000만 \$, 2008년 18억6300만 \$이며, 수입은 2007년 75억2000만 \$, 2008년 66억5000만 \$
- 수입시장에서 TV, 컴퓨터는 한국, 일본, 대만제품; 냉장고는 멕시코;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중국; 건조기와 세탁기는 한국, 소형가전은 중국제품이 많음

#### ■ 친환경(그린) 전자제품 관련 미국내 동향

- 소비자들이 그린제품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 요인
  -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지,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인지 또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인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
  -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옳은 일이기 때문(69%)과 에너지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(63%)라고 응답
  - 전체 응답자의 89%는 향후 TV 구매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고, 응답자의 53%는 TV를 구매할 경우 에너지 절감 등과 같은 추가기능에 대하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
- 에너지 효율성 정보 관련
  -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인지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며, 특히 로고나 인증 그리고 자세한 제품 설명을 선호함.
  - 친환경 제품 구매시 정확한 친환경 관련 성능과 성분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하길 원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포장에 가능한 자세한 제품 정보를 표기를 희망함
- 동향 요약
  - 소비자들은 친환경 의식을 반영, 2008년에 새로 출시된 가전제품 중 에너지스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전체에서 55%를 차지하는 바, 에너지스타 마크의 공인 기관 인증 획득이 판매 확대에 필수적